

초대의 글

**“이웃과 함께 하며 오시는 이에게 행복을 가득히 주는
국제소망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제소망교회는 삶속에서 지치고 힘든 분들이 와서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고향과 같은 참 좋은 교회입니다.

국제소망교회는 영혼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교회로 이웃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국제소망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대안학교와 방과후 교실 및 악기교실을 운영하여 글러벌 리더로 키우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국제소망교회를 늘 기억해주시고, 부담을 갖지마시고 언제든지 방문해 주십시오. 저와 교우들은 여러분을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성규 목사 드림

예배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주일(1부) 09:00, (2부) 11:00 (저녁예배) 19:00	국제소망교회 본당
수 요 저 녁 예 배	수요일(1부) 11시 (2부) 19시	국제소망교회 본당
금 요 성령 충만 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	국제소망교회 본당
매일 새벽, 저녁기도회	월~금요일 6시, 19시	국제소망교회 본당

Profile



최성규 목사는 침례신학대학교와 침례신학대학원을 나왔고, 한국부흥사 연수원에서 훈련을 받았으며, 유인대학교 Ph. D 과정에서 신약신학을 전공하였다.

서울 방배동 일광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섬겼고, 부천 괴안동에서 삼익교회를 설립하여 11년 동안 성장시켰으며, 2003년 1월에 국제소망교회를 개척하여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다.

특히 단계별 영적훈련으로 성도들을 치유하고, 예수님의 참 제자로 양육하고 있으며, 국내 교회와 세계 교회를 위해 부흥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를 섬기는 목회로 이웃에게 행복을 주고 있다.

2023. 05. 7.

제 23-19



국제소망교회

International Hope Church

표 어 :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며 부흥하는 해!(행 9:31)



담임목사 최 성 규

홈페이지, 대안학교:임광혁 목사, 중보기도,전도폭발:안명준목사, 새신자(VIP):서형종목사
국제문화원:유찬양목사, 중고등청년부:에스더 송목사, 반주:최세연간사
영아유치부:장진아전도사, 유년·초등부:최승빈전도사, 찬양단리더:노민주자매,김상현형제
방송미디어:이상학전도사, 최다니엘, 장애우·실버담당:김예일전도사,차량:정병현전도사

경기도 평택시 함박산로 153(고덕동) 010-3932-3927, 031-663-3928

E-mail:samiak12@daum.net / 홈페이지 : 다음 국제소망교회

주일 오전 예배

〈 어린이 주일 〉

오전 10시 45분

집례 : 최성규 목사

경배와 찬양 소 망 찬 양 단

* 찬 송 〈 찬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 다 같 이

* 예배의 부름 〈 시 100:1-5 〉 집 례 자

* 송 영 오케스트라

* 기 원 집 례 자

* 찬 송 〈 찬 21장 다 찬양하여라 〉 다 같 이

* 교 독 문 〈 3번 시 4편 〉 다 같 이

* 신 앙 고 백 〈 사 도 신 경 〉 다 같 이

찬 송 〈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 다 같 이

대 표 기 도 최근영 집사

성 경 봉 독 〈 수 24:14-18 〉 집 례 자

특 송 오 케 스트 라

생명의 말씀 < 하나님과의 관계 > 최성규 목사

봉헌(찬양연주)예물 〈 헌금위원/색소폰연주 〉 다 같 이

인사 및 새가족 환영 〈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 집 례 자

교 회 소 식 집 례 자

* 회 중 찬 송 〈 챔버오케스트라 / 나의 맘속에 온전히 〉 다 같 이

* 축 도 〈 송영반주:챔버오케스트라 〉 최성규 목사

* 표는 일어서서 합니다

국제소망교회 10대 확신 암송구절

1. 구원의 확신(요일 5:12-13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2. 사죄의 확신(롬 8:34-35 누가 정죄하리요 족속일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 기도 응답의 확신(요 16:23-24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4. 승리의 확신(고전 10: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5. 인도의 확신(잠 3:5-7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6. 임마누엘의 확신(히 13:5-6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7. 권능의 확신(눅 10:19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8. 축복의 확신(고후 8: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9. 전도의 확신(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10. 행복의 확신(엡 1:3-4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 국제소망교회 성도들은 10대 확신 말씀을 늘 암송하고 누립니다

성경에서의 질문(8)

질문 / 이브와 하와? 뭐가 맞습니까?

답변 / 이브란 이름은 뭐고 하와는 또 뭐죠?

성경을 공부하다 느닷없이 받은 질문이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하와'로 되어 있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브'로 되어 있다. 같은 이름이다. 동명이인이 아니다.

하와는 히브리식 발음이고, 이브는 영어식 발음이다.

그 뜻은 '모든 산 자들의 어머니'이다.

아담은 처음에 '여자'라고 불렀고, 하나님은 그들 둘 모두를 '아담'이라 부르셨다.

Mr. Adam, Mrs Adam의 기원이 여기서 시작된다. 둘은 한 몸이기 때문이다.

아담은 타락한 후 '여자'라 부르던 이름을 '이브'라고 불렀다.

'하와'라는 말은 '살아 있는 것(생명)'을 의미하는 '하이'라는 단어에 여성형 어미인 '아'가 붙여져서 된 합성어이다.

헬라어로 번역 될 때 헤우아(Eua)로 번역되었고, 라틴어 성경에는 '헤바'(Heva)로, 영어 성경에는 '이브'(Eve)로 번역했고, 한글 개역개정에는 '하와', 흠정역 성경은 '이브'로 번역했다.

정리하면 히브리어 성경- '하와', 헬라어 번역 성경에서는 '헤우아', 라틴어 성경에서는 '헤바', 영어 성경- '이브'이다.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 앙 상 담(4)

Q : 올해 50세 입니다. 교회 직분은 권사이고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활력을 찾을 수가 없어서 몇 자 적어봅니다. 몇 해 전부터 건강이 나빠지면서 자신감도, 신앙생활의 묘미도, 삶의 의욕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다보니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교우관계마저도 서먹서먹하고, 모든 것이 무미건조하게만 느껴집니다. 신앙적으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기도도 해보고 목표의식을 고취시키려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명료하고 흔들리지 않는 천국을 목표로 살아갈까요?

A : 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암 진단을 받는 순간 부정적 심리기전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니야, 오진일 거야. 내가 암에 걸리다니 왜 하필 나야?" 그러니까 암 진단을 내린 의사가 밋고 스트레스를 제공한 환경이며 대상자들이 원망스럽고 미웠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절망과 좌절에 시달리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의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던 어느 날 저와 대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암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몇 사람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잘못 다루면 질병이 되고, 질병도 잘 다루기만 하면 건강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병은 포기과 절망이라는 것도 말해주었습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영혼과 육체가 함께 죽게 될 것이고 영혼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면 육체의 질병도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10년이 지난 지금 건강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건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의욕 상실과 관계의 단절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도우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셀 수 없는 고통과 실패, 질병과 절망으로 아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기둥을 붙잡은 사람들은 다 일어섰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포자기하거나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은 일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과 의욕은 두 바퀴와 같습니다. 질병과 열악한 환경을 박차고 이겨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질병이나 약조건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재기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질병 앞에 무릎을 꿇느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길이 열리고 사건이나 문제 앞에 무릎을 꿇으면 길이 막힙니다.

바울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병과 환경을 다스리시고 믿음과 소망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처한 고통과 아픔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는 마음을 다스리는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새생명의 나눔의 시간

< 어린이 예배 5월 7일 주일부터 오전 11시에
1층 어린이예배실 >

< 새가족 조명단 >

5월 7일 주일오후 1시 30분

남 선 교 회	양육자 : 최근영 집사
여 선 교 회	양육자 : 오재금 사모
학생, 청년회	양육자 : 이선영 집사
교 역 자 회	양육자 : 최성규 목사

<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기- 매주 토요일 >

남 선 교 회	1층 전체, 소예배실, 화단, 카페 남녀화장실, 로비, 주차장, 1층계단
여 선 교 회	3층 전체, 청년부실, 식당, 남녀화장실 유아실, 3층 계단
학생, 청년회	2층 전체, 대예배실, 새가족실, 교역자실, 힐링센터, 기도실, 2층계단

< 수요일예배 >

1부 : 오전 11시 찬양인도 : 이상학 전도사 설교 : 에스더 송목사

2부 : 저녁 7시 찬양인도 : 이상학 전도사 설교 : 최성규 목사

다음 주일예배 청지기

안내 위원 : 서형중 목사, 에스더송 목사, 박정연 집사, 이선영 집사

봉헌 찬양 : 비올라 정순재 연주

봉헌 위원 : 민승진 집사, 이송희 자매, 정서영 자매

다음주기도 : 서형중 목사

교 회 소 식

2023년 표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부흥하는 해(행 9:31)

1. 오늘 처음 오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Vip 도우미의 안내를 받아 새가족실로 오셔서 담임목사와 면담하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주일은 어린이주일, 다음 주일은 아버지주일입니다.
3. 5월8일 12시(정오)아리랑 컵밥 회사에서 식사를 대접 합니다.
4. 어린이 예배는 오전 11시 1층 어린이예배실에서 합니다.
5. 수요일 1부 에스더송 목사, 서형중 목사가 로마서 강해를 합니다.
6. 새로 나오신 분들은 VIP안내위원들에게 새생명의 길을 신청바랍니다. 새가족의 길은 부서별로 주일 1시30분에 실시 합니다.
7. 새벽기도회(월-금) 새벽6시 1층소예배실에서 담임목사가 인도합니다.
8. 매일저녁기도회(월-화,목-금요일) 소예배실에서 저녁 20:30에 있습니다. 월,화,목요일은 에스더송목사, 금요일은 담임목사가 인도합니다.

■ 현금계좌 : 기독교한국침례회소망교회 농협 355-0083-4167-23